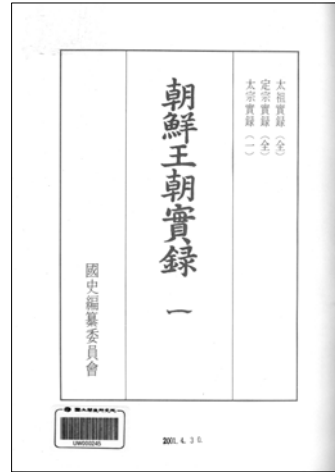


53 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

1971년 / 국사편찬위원회 / 702면 / 13.10-11 국51조 1972

흔 히 말하는 「李朝實錄(이조실록)」이다. 「朝鮮王朝實錄(조선왕조실록)」은 세계 3대 실록의 하나로 꼽힌다. 중국의 명이나 청나라에도 실록이 있지만 각기 250년~300년 정도에 불과하다. 고려실록이 있다고는 하나 실전(失傳)된 상태다.



「朝鮮王朝實錄」은 1971년 12월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축쇄판으로 찍어낸 것이다. 이 실록은 당초 1,500여 권에 색인을 덧붙여 49권으로 압축 인쇄한 것이다. 정사(正史)는 아니지만 「朝鮮王朝實錄」은 역사편찬의 가장 유력한 자료라 할 수 있다. 이 실록이 왕실의 비사(秘史)로서가 아니고 학술연구의 자료로 공개된 것은 1910년 이후의 일이다.

실록 공개의 제2단계로는 1930년~1932년 사이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가 사진 축쇄판 30부를 만들어 당시 일본의 국공립대학 도서관에 배포한 일이 있다. 제3단계는 1946년 실록의 보급판 출판을 시작하였는데 경성제국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던 영인본을 2분의 1 크기인 국판(菊版)으로 축소해서 태종실록 26권까지 완료했을 때 6·25 전쟁이 터져 중단되었다.

전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으며 「朝鮮王朝實錄」 연구의 제1인자로 알려진 未松保和(스에마쓰)는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 학습원(學習院) 원장으로 재직시 동양문화연구소

이름으로 『朝鮮王朝實錄』을 수백 질 인쇄하여,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구매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는 얘기를 『靑丘史草(조선의 역사)』란 이름의 책에서 밝힌 바 있다. 그후 스에마쓰 교수는 자기 친구가 모택동을 만나러 간다가에 얘기를 했더니 모택동이 200질을 팔아 주어 출판비를 갚았다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다.

필자가 1970년대 초 작고한 전 동아일보 주필 천관우(千寬宇)에게 『李朝實錄』을 읽고 싶는데 어떡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읽지 말라고만 한다. 일제하에 우리나라 사가(史家) 두 분이 실록을 읽다가 두 분 다 병을 얻어 죽었다는 것이다. 낡은 책을 들추다가 곰팡이가 호흡기를 병들게 했다는 것이다. 3천 자 정도의 한문수업을 마친 1972년 초, 때마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49권의 『朝鮮王朝實錄』이 출판되었는데, 보니 구독점(句讀点)이 찍혀 있어 해독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. 그래서 7년쯤 걸려 필요한 대목을 간추려 『韓國國土開發史研究』 집필에 큰 보탬이 되었었다.